

종헌·종법 인터넷으로 본다

조계종 1월24일부터 서비스 개시 현행법령 전체 검색·인쇄가능

종교계 최초로 조계종은 종헌·종법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1월 24일 정식개시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각 부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종법령 정보 시연회'를 열고 종법령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 조계종의 각종 종법령 관련 내용을 확인 하려면 기존의 두꺼운 <법령집> 대신 인터넷 http://buddhism.mtn.co.kr을 검색하면 된

다. 조계종은 종법령 정보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무팀(총무원장·기획·전산·종회사무행정팀)을 구성, 법령데이터베이스 전문업체인 (주)엔터넷과 함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법령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등 일부 정부기관에 국한 되어 있다.

조계종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종도들의 종법령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도와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종법령 정보홈페이지의 개통으로 종법령 관리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인터넷 서비스, 이력관리를 통해 종법령에 근거한 종단행정 합리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지금까지는 문서로 된 종단 법령집에 의존해 법령 확인과 공포 등 이력관리가 미흡했으며 종도들에 대한 종법령 안내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행 종법령 목록 및 법령 전문으로 검색과 인쇄, 저장이 가능하다. 또 게시판을 통해 종법령 관련 문의나 유권해석 질의를 하면 조계종 법무전문팀이 답변해준다. 또 2월 이후 법령개정 의 이력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연혁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조용수기자



지관 스님이 '위자야시리' 대사에게 보자기에 새겨진 친필휘호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스리랑카 대사 "한국불교 못 잊을것"

본국 귀환 앞두고 지관스님 예방

위자야 시리 주한 스리랑카 대사 부부가 1월 24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 3년간 한국불자들과 인연을 맺어왔던 위자야시리 대사가 3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전 지관 스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지관 스님은 "2월 중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스리랑카 복지센터가 본격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

해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에도 조계종이 직접 의료봉사를 나섰다"고 말하고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스리랑카에 쏟았던 정성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자야시리 대사로 조계종이 그동안 보여준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위자야시리 대사 부부에게 스님의 친필 휘호가 담긴 보자기와 전통한과를 선물했다.

조용수 기자

장에 선출됐다. 한일불교교류문화협의회는 이날 서울 하림각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열어 전태종 총무원장 윤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최정사, 조계종중앙총회회장 법등 스님을 부회장으로,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을 이사장으로, 총회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조용수 기자

여래종 총무원장에 해안스님
성남 약사사 주지 해안 스님이 한국불교 여래종 제10대 총무원장으로 1월25일 추대됐다.

해안 스님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종단발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여래종은 원로원장에 전국 일흥사 주지 일흥 스님, 총회장에 함양 도선암 주지 법수 스님, 교무원장에 부산 보국사 주지 보강 스님, 호법원장에 원주 대성암 주지 법룡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031)734-3205

해철 대전 총북 지사장

조용수 기자

3월은 스님들 '연수의 달'

조계종 10년·20년·25년차 이상 연수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승랍 10년차, 20년차, 25년차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불교지도자 연수'가 개최된다.

승랍 10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1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1994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94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 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선착순 30명을 접수한다.

승랍 20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5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87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87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한다.

승랍 25년차 이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5회 불교 지도자 연수'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다.

82년 수계를 받은 비구·비구니 중 희망자 또는 82년 이전 승랍자 중 입교에 결격 사유가 없는 비구·비구니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선착순 40명을 접수한다.

각각의 연수에서는 △불교지도자론 △불교지도자 진단 △리더십, 기획력 향상/도반과의 시간 △도제양성 및 지도 방법론 △워크숍(불교지도자의 과제) △불교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연수는 한국종교연구원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20만원.

입교를 희망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로 신청하면 된다. (02)2011-1807-8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11곳 신규지정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립사찰(주지 포함), 고창 잠담암(주지 법남), 성주 심원사(주지 본해), 제주 보덕사(주지 해진), 진주 총림선원(주지 보안)과 흥천 쟁계사(주지 정남), 남제주군 선광사(주지 수열), 북제주군 월영사(주지 정우), 강릉 청학사(주지 법대) 등 11곳을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조용수 기자

지관스님 회장에 추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1월 20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

고려 초조대장경 '대반야경' 해외 유출 우려

<고미술 저널>서 김호년씨 주장... "문화재로 지정해 막아야"

일본 안국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려 초조대장경 인출본 <대반야바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 수백 권이 국내 반입돼 있으나 문화재 지정 등의 보호장치가 없어 해외 유출 우려가 있다. 초조대장경 <대반야경>은 1988년과 1995년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미술 전문가 김호년씨는 <고미술저널> 최근호에 기고한 글 '고려 초조대장경관 <대반야경>의 고독한

귀향'에서 <대반야경>의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반야경>은 김해 부근 서백사에 봉안돼 있던 것으로, 일본이 약탈해갔다. 591권이 일본 안국사에 보관돼오다, 1994년 493권을 도난당했다. 이후 <대반야경>이 국내 반입돼 유통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는 <대반야경> 3권이 국보 제284호로 지정됐는데, 안국사에 보관돼 있던 것과 유사하다 해서 일본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

다. 그 후로는 유사한 <대반야경>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반야경>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입수 경위는 알 수 없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인만큼 적극적인 문화재지정을 통해 <대반야경>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정화'인가 '법난'인가

<태고종사> 발간으로 조·태 견해차이 재확인

<태고종사(太古宗史)> 발간으로 해방 이후의 불교사를 바라보는 조계종과 태고종의 입장차가 얼마나 컸는지 재확인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산하 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 스님)가 7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불교 태고종의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의 일부 문구들이 조계종을 폄하했다며 조계종이 기관지를 통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은 청담·동산·금오·월하 스님 등 1950년대 당시 분규를 주도한 스님들을 '종권 탈취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종단 주도권에 눈이 멀어버린 비구수행승' 등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승려를 분배 결혼한 승려는 종이 아니니 절에서 떠나라'는 유시를 내리자 분파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에서는 '정화'라고 명명했지만, 태고종은 '법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처승(帶妻僧)'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또한 이 책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지왕 김춘삼을 직접 불러 폭력배들을 동원해 태고종 스

태 - 불교사 아닌 종단역사 조 - 폄하·왜곡부분 많다

로 표현한 것.

<불교신문> 1월28일자에 따르면 "조계종단과 종단 스님들 그리고 정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 글은 수도 없이 많다"며 "특히 '대통령과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종권을 탈취한 어용 비구승단'이라거나 '(원)조계종을 강탈한 종단'이라는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태고종측의 폄하와 왜곡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열 스님은 "분규 당시의 성명서와 재판자료 등에 근거해 책을 썼으며 이 책은 어디까지나 한국불교사가 아니라 태고종 종도를 위한 태고종 역사일 뿐"이라며 "과거에 편찬됐던 조계종사도 조계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번 책도 태고종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을 쓴 것인데 일부 문구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책에 대해 한국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한 김광식 교수(부천대 교양학부)는 "이 책은 역사서가 아니라 단순한 자료집 수준"이라며 "역사서는 보는 사람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인 관점이 전혀 배제될 순 없지만 이 책에는 역사적인 해석이나 설명보다는 법령 등 자료의 나열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역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지양하고 등반자적인 관점에서 배려하는게 필요한데 이 책에는 폄하한 문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태고종사>에는 이승만 정권이 불교계 내부문제에 개입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정권 의도, 태고 보유 종조설이 보조 지능 종조설로 바뀌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불교 분규의 지속으로 야기된 불교계의 피해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김주일 기자

또한 김 교수는 "역사서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지양하고 등반자적인 관점에서 배려하는게 필요한데 이 책에는 폄하한 문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태고종사>에는 이승만 정권이 불교계 내부문제에 개입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정권 의도, 태고 보유 종조설이 보조 지능 종조설로 바뀌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 불교 분규의 지속으로 야기된 불교계의 피해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보 우 승 가 대 학 2006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불교계 최고의 전문지도자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고계 대덕스님 및 유명 교수진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최고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모집학과 및 강의 내용

과 정	내 용	강 의 내 용	강 의 과 목	입학자격
승가학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불교성직자 양성을 위한 내외전 학습 및 습의를 교계의 권위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며 출가에 관한 모든것을 지도해드립니다.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불전익식, 포교학, 상담심리학, 선어록, 불교학, 불교사, 태고종학, 다도, 서예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학	불교경전강의 및 교리, 사상, 역사, 포교, 불교복지 등 불교의 전반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유명교수들이 집중강의함.		중관사상, 유식학, 선학개론, 화엄학개론, 기신론, 불교학, 불교사, 원각경, 금강경, 불교사회복지론, 생활역학, 다도, 태고종학 등	스님 및 일반불자
범패학	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범패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을 완벽하게 강의 지도함.		의식이론, 시련, 대령, 관속,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화청, 바라부, 착복부,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출가 희망자
불교전통예술학	사찰전래의 49체, 예수제, 영산재 및 각종, 행사시도량장엄을 비롯한 전통예술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현장교육식 방법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함.		전통도량장엄, 양공(손가사제), 지화(전통꽃), 제설비, 장엄서예(법서), 불교학, 불교사, 초발심자경론, 사미율의, 태고종학	스님 및 일반불자
특강과정	호적반	불교의식 악기중 호적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		스님
	서예반	수행과 교화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예를 서예의 대가이신 유명스님께서 직접지도해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생활역학반	사찰운영 및 대인 상담시 필요한 이차 택일 기초주주 궁합등과 전문적인 인성 카운셀링등을 지도해 드립니다		스님 및 일반불자

2) 교육과정 : 본교는 2년 4학기제로 운영하며 철저한 학점제 운영과 정규학교 출석강의로 최상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만전을 기함.

3) 모집일자 : 2006년 2월 25일까지.

4) 구비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교졸업증명서1통, 반명함판 사진3장.

5) 전형방법 : 면접 및 서류접수(각반 30명 이내, 선착순접수함)

6) 합격자발표 : 개별통지

7) 통신강의 : 지방에 거주하거나 출석강의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통신교육과 월2회 출석수업을 실시함.

8) 장학제도 :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9) 편입제도 : 타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자 또는 면접을 통하여 그 소양을 인정 받은자는 고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전화 : 02-763-5213, 팩스 : 02-747-9290)

11) 장소 : 서울 종로구 창신3동 7-26 원각사내 (주차장 및 기숙사반비)

12) 특전 : 본교를 이수한자가 출가를 원할시 적극지원하며 전법사 응시자격과 포교사 자격을 부여함.

13) 본교는 보수승가회 소속 회원스님들이 후진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불교엘리트 지도자 양성교육 기관으로 일선현장에서 직접 사찰운영과 포교를 한 경험을 토대로 후학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하여 졸업후 바로 포교현장에 적용 할수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함.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